

## 전환의 시대, 새 희망의 활로

2025.4.16.  
의료원장 임명사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경희학원이 신임 의료원장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의료기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정과 경영상의 어려움.  
전공의 공백.  
예상치 못한 상황이 겹쳐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엔 수많은 분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구성원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간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간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가야 할 때입니다.  
사태 수습을 넘어, '대반전'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약과 발전.  
그 과업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희의료원이 상급병원 중증질환, 연구 중심 병원의 위상을 새롭게 합니다.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었습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대외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 위상 부문에서도 경희의료는 지난해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엔 위기 돌파를 향한 구성원의 남다른 열정과 실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우리 의료기관의 모체가 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역사의 중요성, 미래의 회상

1971년.

경희의료원은 그 출범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당시 개원식은 ‘감격의 순간’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경희학원은 “질병 없는 인류사회”를 꿈꾸며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을 건설했습니다.

기존 대학병원을 능가하는 시설 투자를 단행했고, 최첨단 의료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전례 없는 대규모 우수 교원 영입과 직원 채용도 뒤따랐습니다.

착공부터 개원까지 만 6년.

그 기간 많은 분의 아낌 없는 노고와 고충이 있었습니다.

개원식 당일, 설립자께서 이렇게 슬회했습니다.

“태산처럼 보이던 산적한 과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분의 노고와 협력 덕에  
오래 염원하던 대망의 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희의료원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고 국민의 것, 국가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노력과 정력이 깃든 경희의료원을 국민에게 헌납합니다.”

그 무렵 설립자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의지는 역경을 뚫고 협동은 기적을 낳는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함께 경희의료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탄생 반세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2025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할 많은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의 미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와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경희의 긍지와 새로운 포부, 새 희망의 지평을 어떻게 열 것인가?

그 답의 실마리는 경희의 전통적 가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희학원은 설립 이래 “Global Eminence”를 추구해 왔습니다.

연구와 교육, 진료 부문에서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일.

이를 위한 창의적 전문 행정을 펼치고,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

그런 일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창조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첨단 의료 기술의 출현.

새로운 통찰과 영감을 초대하는 융복합 연구.  
이에 기반한 창의적 미래 인재 교육.  
첨단 인공 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전문 행정.  
전환적 지구 환경이 요청하는 의료·보건의 막중한 책무.  
유례없는 도전 과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료 환경뿐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대전환’이라 할 만큼 폭넓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큰 전환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문명사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  
깊어지는 식량과 물 부족 문제.  
이례적인 규모와 빈도의 감염병 확산.  
나날이 깊어지는 지구적 양극화와 정치적 혼돈.  
이처럼 인류사회의 생존과 번영 조건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기회의 창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의 출현 가능성.  
온 우주의 기본 단위인 아원자 차원 연산을 가능케 할 양자 컴퓨터 시대의 임박한 도래.  
JWST(James Web Space Telescope)가 열어가게 새로운 우주 시대.  
첨단 과학기술의 등장과 함께 인류는 지금 지속 가능한 미래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혼란스럽게 교차하는 시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환의 과업입니다.  
시대를 단순히 살아내는 일만이 아닙니다.  
목전의 생존 경쟁을 넘어, 내일을 기획하고 오늘의 현실을 새롭게 일궈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질병 없는 인류사회.”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가치 구현은 여전히 우리가 못다 이룬 역사적 과제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심도 있게 예찰하면서 기관 경영의 또 다른 지평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 **희망의 활로**

지금 우리에게겐 두 가지 과업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경희의료의 걸어온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설립 초부터 2000년대까지, 경희의료는 ‘세계 최초’, ‘동양 최초’, ‘한국 최초’란 수식어가 뒤따르는 큰 성취를 이뤘습니다.

정형외과, 외과, 내과, 피부과, 산부인과….

주요 진료 분야에서 첨단 의료와 연구를 선도해 왔습니다.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큰 성취를 이뤘습니다.

국내외에서 유례없는 혁신적 의술을 펼쳤습니다.

2000년 이후엔 환자 경험과 안전, 만족도, 명성 부문에서 경희의료는 여러 차례 국내 최상위권을 이뤘습니다.

또 다른 과업도 있습니다.

그간의 역사적 성취를 토대로 기관 경영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의료원, 강동병원, 의·치·한의학 기초 분야, 간호학, 약학, 공학, 자연과학 등의 유관 전공 분야와 포괄적 협력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역동성을 이끄는 일입니다.

최근 세계 우수 학술기관은 융합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자 과학, 인공 지능, 우주산업, 나노 기술, 기후변화, 감염병, 바이오헬스….

이제 의료·학술 부문도 독자적 학문 세계를 넘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류 미래를 향한 통합 과학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연구와 진료 부문의 연결과 소통의 문을 확장해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전환 시대의 과제를 응시하는 새로운 통찰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변화의 징후와 함께 의료계 인식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의료를 여전히 중시하되, 빠르게 변하는 의료·학술 환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관 경영 패러다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기관 경영 패러다임은 경희의료에 관한 성찰적 분석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선 내외부 환경 변화를 전일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경희학원은 학문과 교육, 의료를 아우르는 종합학원 체계입니다.

2개 병원과 8개 학술·교육 기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그 중심에서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야 합니다.

특히 연구, 교육, 대외협력, 국제관계 영역에서 협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 길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내 전문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경영의 안정성, 역동성, 미래 지향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시대의 당위 앞에서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큰 경영’과 ‘큰 교류·협력’의 장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심층적으로 예찰하면서 기관 경영의 또 다른 지평을 여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적 과제이자 책무일 것입니다.

## 맺으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경희학원이 신임 의료원장께 현장 경영의 책무를 위임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지혜와 열정이 모여, 전환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무거운 책임을 맡겨 드리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임 의료원장께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도약과 발전을 마음 깊이 바라는 구성원, 경희학원의 한마음이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는 꿈과 실천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경희 역사입니다.

의료원장께서 짊어진 역사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성원과 격려, 미래로의 책임 의식이 그 역사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버팀목 삼아, 경희의 미래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경희의료의 긍지와 포부를 드높이고, 구성원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과 복지 부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질병 없는 인류사회”.

그 꿈은 여전히 우리가 못다 이룬 역사적 과업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과거를 넘어, 세계 의료·보건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경희의료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